

영국 교통부(DfT), 전기화물차 보조금 확대 및 물류 탈탄소·효율 로드맵 제시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영국 교통부(DfT)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영국 교통부는 물류 탈탄소화와 효율 향상을 위해 대형화물차 무공해 전환 보조금을 확대하고, 물류 혁신 기금의 성과와 향후 로드맵 발표

- 물류 분야를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2040년까지 모든 신규 화물차의 탄소 무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계획을 발표
-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충전 인프라의 표준화,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화물 최적화 등 '배송' 및 '물류 정보화' 전반의 기술 고도화 추진
- 대형 화물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한 '무공해 배송' 표준 확립
 - 영국 정부는 기존의 '플러그인 트럭 보조금' 예산을 확충하고, 차량 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12만 파운드(약 2억 원)로 상향하여 물류 기업의 초기 투자 장벽을 제거
 - 2035년(26톤 이하), 2040년(전 차급) 신규 '비(非)제로배출' 화물차 판매 종료 목표에 맞춰 물류 시장을 전기·수소 화물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CO₂ 규제체계 강화
 - 이를 통해 도심 라스트마일 배송부터 장거리 대형 수송까지 전 구간에 걸친 탄소 배출 제로화 기술 표준을 제시
- '물류 혁신 기금'을 통한 스마트 물류 정보화 및 자동화 실증
 - 중소기업·스타트업이 보유한 AI·머신러닝 기반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적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고도화 전략 제안
 - 화물차 적재 공간을 실시간 파악하는 배차 알고리즘과 창고 하역 자동화, 항만·내륙 연계 구간의 자율주행·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결합해 물류 흐름을 이해하고, 예측하는 등 최적화
- 무공해 화물차 및 인프라 실증(ZEHID*)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운영 모델 제시

* 영국 정부가 대형 화물차(HGV)의 무배출 전환을 실제 물류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고, 충전·수소 인프라와 운영데이터를 함께 축적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규모 실증 R&D 프로그램

- Amazon, Royal Mail 등 주요 물류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참여하는 ZEHID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대의 무공해 화물차를 실제 운송 노선에 투입하고, 고출력 충전 표준과 인프라 운영 데이터를 수집
- 수집된 운영 데이터는 물류 정보화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차량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, 고장 예측, 최적 충전 시간대 도출 등 운송 운영의 효율화를 지원
- 도심 배송 거점인 마이크로 허브에서 전통 바이크와 전기 화물차 간 연계 운송 표준 모델을 실증하여 하역·배송 효율을 높이고 도시 물류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

※ 출처 : 영국정부보고서(2026.01.06). Boost for British business as government slashes cost of electric lorries by up to £120,000